

가나

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4. 7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7
IV. 국제신인도	8
V. 종합의견	10

I. 일반개황

면적	239천 km ²	G D P	472억 달러 ('13)
인구	2,576만 명 ('13)	1 인 당 GDP	1,816달러 ('13)
정치체제	공화제(대통령중심제)	통화단위	Ghana Cedi (GHC)
대외정책	친서방 중립	환율(달러당)	2.63 ('13)

- 아프리카 서부의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가나는 한반도의 약 1.1배에 달하는 국토와 약 2,576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, 부르키나파소(북부), 토고(동부), 코트디부아르(서부)와 접경하고 있음.
- 민족구성은 Akan족이 주를 이루고 Ewe, Mol-Dagdon 등 여러 종족이 분포하고 있으며, 종교는 국민의 71%가 기독교, 약 18%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음. 종족간 또는 종교간 마찰이 없으며 내란과 테러 위험은 낮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음.
-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이지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(ECOWAS)의 일원으로 역내 경제, 외교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- 인플레이션, 천연가스 수출가격 하락, 자국통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2014년 경제성장률은 5.7%로 하락 전망
 - 가나는 2011년부터 시작된 원유 생산과 금, 다이아몬드 등의 자원개발을 통해 양호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나, 2011년 15%의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성장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음.
 - 주요 수출품목인 천연자원의 국제가격 하락과 원유 생산시설의 확충 지연으로 인해 2013년도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1.7% 포인트 하락한 7.1%를 기록하였음.
 - 원자재의 수출가격 하락과 원유 생산시설의 완공 지연이 2014년에도 계속되어 광산 개발과 원유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. 또한, 높은 물가상승률, Cedi화의 가치 하락, 전력 및 물 부족 등이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며 2014년 경제성장률은 5.7%로 급락할 전망이다.

※ 환율변동내역(GHC/US\$) : 1.50('11) → 1.81('12) → 1.98('13)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0	2011	2012	2013 ^o	2014 ^f
경 제 성 장 른	8.0	15.0	8.8	7.1	5.7
재 정 수 지 / G D P	-6.5	-4.0	-11.6	-10.1	-9.7
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른	10.7	8.7	9.2	11.6	14.0

자료: IMF, EIU.

- 공공 부문 임금인상과 채무 및 이자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 지속
 -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연장을 위하여 단행된 가나 정부의 공공 부문 임금인상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4.0%에서 11.6%로 급증하였음.

- 정부는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에 따른 세수증가로 2013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 대비 9%로 예상하였으나, 공공 부문 임금인상과 재정수지 적자의 보전을 위해 도입된 외채의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GDP 대비 10.1%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함.
- 정부는 2013년부터 시작된 연료, 수도, 전기 등에 대한 보조금의 폐지 및 삭감을 통해 2014년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8.5%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. 그러나, 보조금 정책 변경만으로는 임금인상분과 이자 납입분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2014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9.7%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.

□ Cedi화 약세, 공공요금 인상으로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지속

- 높은 경제성장률과 Cedi화의 약세가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 2012년에는 식료품 국제가격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Cedi화의 약세로 식료품 수입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9.2%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함.
- 2013년에는 Cedi화의 약세 지속과 더불어 보조금 제도 폐지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1.6%로 상승함. 정부는 2014년 전기·수도세 등 공공요금의 가격책정 방법을 비용 기반으로 변경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2년 연속 두 자릿수인 14.0%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코코아, 원유, 금 등 1차산품 중심의 수출로 세계 원자재 시장에 민감

- 산업별 GDP 구성 비율은 2013년 기준 농업 21.5%, 서비스업 49.8%, 제조업 28.7%로, 제조업의 주요 제품은 농기계 관련이며 가전제품 등 생활필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개도국형 시장구조임.
- 가나의 주요 수출품은 금, 코코아, 원유 등으로 전체 수출의 8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. 1차산품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아, 국제 원자재 가격 등에 따라 국가경제가 크게 좌우되는 취약한 구조임.

□ 열악한 인프라, 고급인력 부족으로 성장기반 취약

- 세계경제포럼(WEF)의 2013-14년 글로벌 경쟁력 지수(GCI)에 따르면 가나의 전체적인 인프라 수준은 148개국 중 109위이며, 특히 전력공급은 120위로 산업 발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.
- 가나 전력의 85%는 수력발전을 통해 생산되고 있어 가뭄시 전력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, 매장이 확인된 원유와 천연가스를 통한 원활한 전력 생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- 유엔개발계획(UNDP)이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(HDR) 2013에서 가나는 185개국 중 135위로 보건, 교육 등 사회 환경 전반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음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금, 다이아몬드, 망간, 보크사이트 등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

- 광업은 가나 GDP의 7%, 전체 수출의 41%를 차지하고 있으며, 그 중 90%를 금광업에 의존함. 가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은 아프리카 제 2위 (전 세계 10위권)의 금 생산국으로, 매년 200만 온스 이상의 금을 생산함.
- 금 외에도 망간, 다이아몬드, 보크사이트, 철광석, 석회석 등 다양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, 상업적 생산을 위한 탐사가 진행 중임.

□ 유전, 천연가스전 개발 추진 중

- 원유 확인매장량은 6.6억 배럴로, 2011년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일일 12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음. 현재 10여 개의 유전이 개발 중이며, 2019년에는 일일 생산량이 2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.
- 가나 국토 내에 약 2,000만 m³ 규모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확인되었음. 채굴을 위한 기반시설의 완공이 지연되어 아직까지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으나, 개발을 위한 외국인투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음.

다. 정책성과

□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세율인상, 보조금 감축 등 시행 성과 미흡

- 가나 정부는 광업과 농업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벗어나 제조업, 서비스업 등 사업다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음. 그러나, 기반시설의 부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, 재정수지 적자로 관련 인프라 투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.
-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2014년초 부가가치세를 2.5% 포인트 인상하였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는 한편 연료, 전기, 수도 보조금을 삭감 또는 폐지하였으나,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여전히 두 자릿수(2013년 10.1%)를 기록하고 있음.
- 재정적자의 근본 원인인 공공 부문 근로자 임금을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임금지급 시스템의 전산화를 추진 중임. 또한, 전기, 수도 요금 인상을 통한 보조금의 추가 감축을 검토 중이나,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.

3. 대외거래

□ 주요 수출품인 금 가격 하락, 코코아 생산량 감소, 인프라 개발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기조 유지

- 가나정부는 원유수출로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, 금 가격 하락, 코코아 생산량 감소로 상품수출이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음. 한편, 금, 다이아몬드, 원유 등의 자원 개발과 도로, 철도 등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본재 수입 증가는 상품수지 적자 및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고 있음.
- 금 가격 하락,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본재 수입, Cedi화의 가치 하락으로 2013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19.7% 증가한 57.2억 달러를 기록함.
- 2014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대비 13.1% 감소한 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,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경제성장을 저하로 인해 2013년 12.1%에서 12.3%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.

<표 2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0	2011	2012	2013 ^o	2014 ^f
경 상 수 지	-2,747	-3,504	-4,778	-5,720	-4,969
경 상 수 지 / G D P	-8.5	-8.8	-11.5	-12.1	-12.3
상 품 수 지	-2,962	-3,057	-4,220	-3,850	-3,688
수 출	7,960	12,785	13,543	13,756	14,256
수 입	10,922	15,843	17,763	17,606	17,944
외 환 보 유 액	4,680	5,383	5,349	5,249	-
총 외 채 잔 액	9,318	11,289	11,827	13,941	15,513
총 외 채 잔 액 / G D P	29.0	29.0	29.3	30.6	30.8
D . S . R .	6.6	6.9	7.0	7.3	6.1

자료: OECD, EIU.

□ 금, 원유,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FDI 유입 지속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는 담보 상태

○ 금, 원유,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 개발에 매년 32억 달러 규모의 FDI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나,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로 2013년 외환보유액은 52억 달러 수준을 넘지 못 하였음.

※ FDI 유입내역(억 달러) : 32.5('11) → 32.9('12) → 32.3('13)

□ 재정수지 적자 지속에 따른 해외차입 규모 증가 추세

○ 재정수지 적자분을 해외차입으로 보전함에 따라 차입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. 2013년 총외채잔액은 전년 대비 21억 달러 증가한 139억 달러(GDP의 30.6%)로 추정되며, 2014년에는 2013년보다 15억 달러 증가한 155억 달러(GDP의 30.8%)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.

Ⅲ. 정치·사회동향

1. 정치안정

□ 민주주의 체제로의 안정적인 이행

- 가나는 부정부패가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으나, 아프리카 국가 중 민주주의가 충실히 이행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. 2013년 EIU가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평화적 정권 교체, 높은 언론의 자율성, 사법부의 독립적 지위를 높게 평가받아 전년보다 10단계 상승한 68위(전체 167개국)를 기록함.
- 2012년 John Atta Mills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부통령인 John Mahama가 정권을 이어받아 2012년 말 대선에서 승리하며 현재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음.

2.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

□ 부정부패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시위 발생 가능성 잔재

-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 지수는 177개국 중 63위로 아프리카 국가 중 비교적 양호함. 그러나 10%대의 물가상승률과 함께 원유와 가스 생산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일부 특권층에게 돌아간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.
-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가 지속되고 있으나, 원유와 가스 생산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,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'아랍의 봄'과 같은 반정부 시위 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.

3. 국제관계

□ 경제지표 악화에 대한 원조국의 우려 증대 속 중국과의 관계 강화

- 정치적 안정성이 양호하여 원조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, 경제지표 악화에 대한 기존 원조국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.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 위안화 거래 허용, 차관 증가 등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.

□ 지역 내 외교적 영향력 유지

- 과거 가나 대통령이 서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(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: ECOWAS)의 의장을 역임하는 등 나이지리아와 함께 서부 아프리카의 경제, 외교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- 코트디부아르와의 해양 경계선 부근에서 상당량의 석유가 발견되어 코트디부아르와의 국경 분쟁이 과거부터 지속되고 있음. 그러나 양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양국이 대립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대규모 외채 탕감 경험

- 고채무저소득국 이니셔티브(HIPC Initiative)에 따라 2003년 15.6억 달러의 공적외채를 탕감받음. 최근 재정수지 적자로 IMF의 원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, IMF는 가나 정부의 원조 요청이 없었음을 밝힘.

□ OECD 회원국 ECA의 대 가나 지원현황(2013년 6월말 기준)

- 단기: 총 지원잔액 2.3억 달러(연체금액 40만 달러)
- 중장기: 총 지원잔액 32억 달러(연체금액 1,600만 달러)

□ IMF 및 세계은행 연체현황: 없음(2013년 6월말 기준)

□ 외채규모는 증가 추세이나 단기 외채상환능력은 양호

-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공적 원조를 포함한 외채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, GDP 대비 외채규모는 30%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음.
- D.S.R.은 7% 수준으로 다소 높은 편이나, 단기외채 비중이 총 외채규모의 25% 수준으로 수출을 통해 단기적 대응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단기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임.

□ 양국간 해외직접투자 현황

- 우리나라의 대 가나 주요 투자업종은 농업, 건설업, 제조업 순이며 투자 실적은 2014년 3월 말(누계기준) 신규법인수 총 35건, 투자금액 96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.
- 가나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내역은 총 105건, 9.8백만 달러임.

V. 종합 의견

- 가나는 2011년 말부터 시작된 원유 생산을 계기로 큰 폭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저소득국가에서 벗어났으나, 인플레이션, Cedi화 가치 하락, 쌍둥이 적자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제성장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.
- 공공분야 근로자 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가 계속됨에 따라 세율 인상, 보조금 축소 및 폐지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, 성과가 미흡하여 재정적자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.
- 주요 수출품인 코코아의 생산량 감소, 금 가격 하락으로 경상수지 적자폭도 확대되고 있으며,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본재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도 적자 기초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.
- 정치적 안정성이 높고 석유, 금,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. 또한, 서방 원조국 및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재정수지 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자금의 마련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- 쌍둥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공적원조를 포함한 외채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, GDP 대비 외채규모는 30%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단기외채 비중이 낮고 수출을 통한 단기적 대응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단기 외채 상환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임.

조사역 임민교(☎02-3779-5727)
E-mail : ymg@koreaexim.go.kr